

신선이 즐긴 금강산 만폭동 바둑판



세 산의 신선이 바둑을 즐겼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내금강산 만폭동 초입 계곡 바위에 새겨진 삼산국(三山局) 바둑판. 지난달 27일 내금강 관광을 위한 남북한 공동 답사가 실시됨에 따라 이 바둑판이 남쪽에 공개됐다. /연합뉴스

후지쓰배 손대지 마!

올 시즌 무관 전략 한국 바둑, 이창호·이세돌 등 中 북경서 정상탈환 출격...8연승 이어갈 지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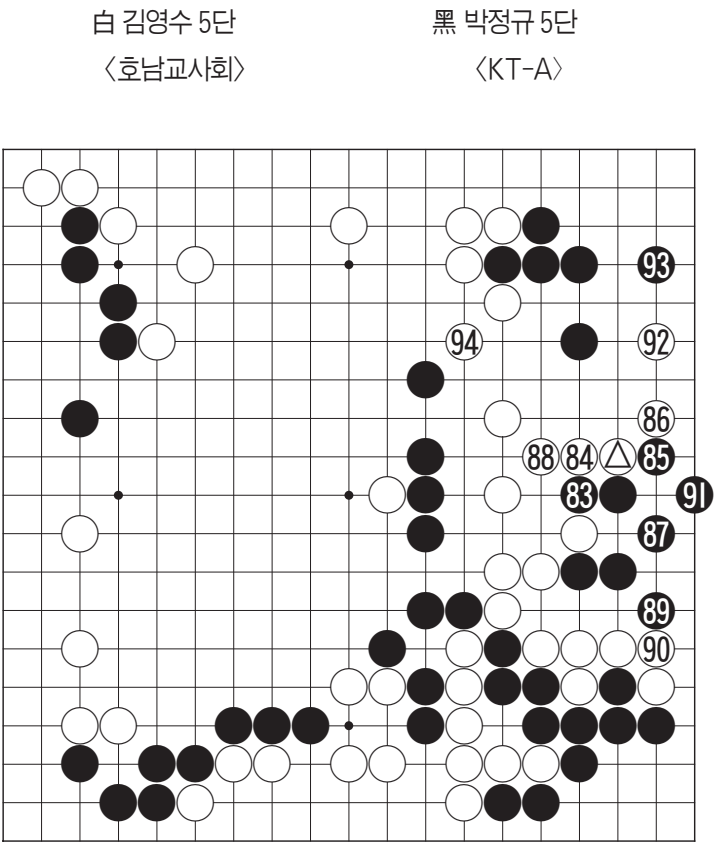
‘무관의 설움을 씻겠다’ 중국의 거센 도전에 밀리고 있는 한국이 세계 메이저대회인 후지쓰배와 중국 타도,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선다. 한국은 이창호 9단, 이세돌 9단, 최철한 9단, 박영훈 9단 등 4인방과 박정상 6단 등 무려 5명이 3일부터 북경에서 열리는 제19회 후지쓰배 8강전에 출격한다. 한국에 후지쓰배는 올 들어 열린 6개 세계대회에서 무관으로 전략한 수모를 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후지쓰배는 지난 98년 11회 때 이창호 우승 이후 18회 이세돌까지 8년

연속 한국이 우승을 독식해온 대회다. 또 후지쓰배는 응씨배, 동양증권배와 함께 세계바둑 3대 타이틀 중 하나로 절대안정할 수 없는 덩치 큰 대회다. 한국 기사 5명이 8강전에서 각개 전투를 벌이는 좋은 형국이지만 대진 운이 못내 슬플하다. 이창호와 이세돌이 8강전에서 만나야 하는 ‘필연’ 때문에 한국은 강력한 우승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잃어야 한다. 이창호는 지난 98년 11회 타이틀을 홀더이며, 이세돌은 지난 2002년과 2003년 2연패에 이어 이 대회 통산 3회 우승을 노리는 우승단골 손님이다. 최철한 9단은 일본의 유키사토시 9

단, 박영훈 9단은 중국의 저우허양 9단과 대국하고, 박정상 5단은 중국의 장하오 9단과 맞서는 등 나머지 기사들은 ‘골육상잔’을 면했다. 8강전 결과에 따라 국내 팬들은 한국 선수 4명이 4강에 오르는 즐거운 상상과 함께 한국 기사들끼리의 결승 대국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관건은 육일 승천하고 있는 중국의 기세를 꺾는 것이다. 중국의 저우허양 9단은 박영훈 9단을 두 차례나 물먹였던 장본인이다. 창하오는 박정상과 첫 대국이지만 국제 무대에서 군살이 박힌 중국의 내로라 하는 대표기사다. 올해 응씨배 우승을 비롯 강일랜드배 우승 주역이다. 이에 따라 후지쓰배 우승의 향배는 한국기사들과 중국 기사들의 8강 승부에 따라 갈릴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제15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영기부대회

‘최악’의 삶 2회전 제 6보(83~94)



우편 백 ㉔의 급습에 박정규 5단이 휘청거리고 있다. 박 5단은 곤혹스런 표정으로 한참동안 안방을 살피더니 흑 83으로 움직이며 수습에 나섰다. 그런데 이 수가 또 당황한 끝에 피해를 키우게 되는 악수였다. 이 수로는 일단 참고도 1의 1로 아래 쪽에서 찌는 것이 좋았다. 백이 2로 되짚혀 오는 것이 곤란해 보이지만 나름대로 수가 있었다. 3 이하 13까지 진행되는 수순을 감안하면 백이 거꾸로 걸려들어 잡히게 된다. 또 백이 참고도 2의 2로 늘면 이번에는 7까지 넘어 가면 된다. 실전에선 흑이 91까지 주변에서 간신히 살았으나 백의 외박이 두렵게 되어 최악의 결과가 되고 말았다. 백이 주도권을 장악하는 순간이다. 흑은 92로 우상변에 과고 든 뒤 흑이 93으로 귀를 지키자 94로 상변 백과 연결하며 중앙의 흑을 노리게 된다. 흑의 다음 응수는 어디일까.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이창호의 승부세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출간

“棋의 달인은 棋로 말하지 않는다”

86년 프로 입문 이후 20년간 1298승 380패(승률 77.4%), 타이틀 획득 129회(국제 대회 22회), 스무살도 채 안된 나이에 세계 정상에 올라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바둑의 신화’를 써가고 있는 프로 기사 이창호(31). 그 불가해한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팬들까지 그에게 환호하고, 그의 ‘집권’이 오래 지속되길 원하는 이유는 진정 무엇일까. 프로기사 이창호의 삶과 승부세계를 다룬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반상의 CEO 이창호 스토리(이투파)’가 출간됐다. 바둑을 통해 이창호 9단의 삶과 철학을 파헤친 이 책은 ‘이창호처럼 보여주는 이창호가 아니라’, ‘이창호도 모를 수 있는 진짜 이창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어린시절 천재로 인정받기까지 과정, 아성에 도전하는 천적을 극복하려는 연구와 노력, 정상을 지켜내기 위한 엄격한 자기관리. 특히 ‘물부처’ 이창호의 승부세계는 물론이고 나아가 ‘인간 이창호’와 ‘최고 경연자’ 이창호까지 폭넓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책은 ▲즐거게 몰입하라 성공은 그 열매다 ▲노력을 외면하는 결과는 없다 ▲용기의 원천은 조심성 ▲최고의 절대조건은 창의력 ▲최고의 여유는 긍정의 힘 등 이창호의 5가지 교훈을 들려준다. 저자 손중수씨는 “이창호는 ‘인간경연’의 미덕을 잃어가는 이 시대의 최고 경연자들에게 포용의 리더십, 결승의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진정한 CEO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계임, 3연승 선두질주

2006 한국바둑리그 2006 한국바둑리그에서 경기 한계임이 3전 전승으로 독주하고 있다. 한국바둑리그 3라운드를 마친 2일 현재 한계임은 3전 전승, 승점 9점으로 선두를 지키고 있다. 현재까지 한계임이 활약한 전적 합계는 무려 10승 2패. 한계임은 지난달 26일 광주 GS

KIXX에게 선두를 내준 지 5일 만에 1위 고지를 재탈환했다. 광주 GS KIXX는 현재 2승 1무 승점 7점으로 2위에 머물고 있으며, 1승(승점 3점)을 추가할 경우 한계임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서는 등 각축을 예고하고 있다. 개인 성적에선 이창호(매일유업) 최철한(박정상)이상 KIXX 김승준(신성건설) 원성진(이상한계임) 등 6명이 3연승을 달리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영화안내 Happy Time 영화안내

메가박스 구원단국사거리 2관 포세이돈 124회

엔터시네마 1관 헛지(더빙) 184회

엔터시네마 2관 호로비츠를 위하여 184회

엔터시네마 3관 미션임파서블 3 154회

컬럼버스시네마 하남점 상무점

A+ 에이플러스 부동산컨설팅

침단·수완·신창 상업지구 택지 상가건물 공개전문

망 3번도로점 560여평

아주 특별한 제안 독점상권의 상업지역 종합병원 사우나(점질방)

국민지도 http://www.hanmap.co.kr

중앙국토개발건설 (TEL) 011-647-3500

GS부동산컨설팅 T. 572-7744, 9866

용한공인중개사 T. (대) 682-8911

상가입대 1층: 약국,금방,안경점